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2. 20.(화) 08:30	배포	2024. 2. 20.(화) 08:30

수술비 없어 고통받던 저소득 취약계층에 긴급 의료비 지원

- 국민권익위, 인천 부평구·울산 울주군과 협력해 취약계층 고충민원 해결

□ 수술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저소득 취약계층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받아 수술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협력해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 인천광역시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ㄱ씨는 지난달 뇌경색과 목 혈관이 막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고 자신이 마련해 둔 돈으로 병원비 일부를 부담했다.

그러나 ㄱ씨는 이번 달 목 혈관 수술을 받아야 했지만 비용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하자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부평구청과 긴급 의료비 지원 여부를 협의해 ㄱ씨에게 목 혈관 수술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울주군청과 협력해 수술비가 없어 수술을 못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자 ㄴ씨에게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300만 원을 지원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긴급 의료비 등을 지원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복지노동민원과	책임자	과 장	안정륜 (044-200-7461)
		담당자	조사관	이은숙 (044-200-7430) 최혜자 (044-200-742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